

연결어미에 나타난 음절 강도체계와 형태소 보존기능

오 정 란
(광운대학교)

1. 서론

어간 뒤에 올 수 있는 연결어미는 그 두음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파열음계·비음계·유음계가 그것이다. 다양한 어미들 중에서 대표적인 어미를 뽑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결어미의 세종류

파열음계 연결어미 : -게, -지, -고

비음계 연결어미 : -며 (-면, -면서, -매, -므로)

-니 (-나, -니까, -는데, -니데)

유음계 연결어미 : -려 (-라고, -려니와, -르지)

선행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인 경우에는 파열음계·비음계·유음계 공히 그대로 어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개음절 이간과의 결합

파열음계 연결어미 : 가게, 가지, 가고

주게, 주지, 주고

비음계 연결어미 : 가며, 가면서, 가매,

가니, 가나, 가니까.

유음계 연결어미 : 주려, 주라고, 주려니와

그러나 선행어간 말음이 파열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활용모습이 이대분 된다. 비음계·유음계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으'삽입을 요구하지만, 파열음계는 그렇지 아니하다. 대신 두음인 파열음의 경음화가 있게 된다.

(3) 파열음 이간과의 결합

파열음계 연결어미 : 먹게[먹께], 먹지[먹찌], 먹고 [먹꼬]

비음계 연결어미 : 먹으며 (*먹며)

먹으니 (*먹니)

유음계 연결어미 : 먹으러 (*먹러)

어간 말음 비음과의 연결시에도 (3)과 동일한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비음과 결합된 파열음은 단순히 경음화 되지만, 비음과 결합된 비음의 경우는 '으'삽입을 요구하게 된다.

(4) 'ㄹ'어간과의 결합

파열음계 연결어미 : 감게[감께], 감지[감찌], 감고[감꼬]

비음계 연결어미 : 감으며 (*감며)

감으니 (*감니)

유음계 연결어미 : 감으러 (*감러)

(5) 'ㄴ'어간과의 결합

파열음계 연결어미 : 신게[신께], 신지[신찌], 신고[신꼬]

비음계 연결어미 : 신으며 (*신며)

신으니 (*신니)

유음계 연결어미 : 신으러 (*신러)

이상 2) 3) 4) 5) 에서 비음계와 유음계만 고려하면, '으'를 닿소리의 달아내기를 쉽게 하는 고름소리 (조음소)로 규정한 최현배 (1937 : 176-88)의 기술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파열음계의 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으'가 만약 조음소라면 '먹게, 먹지, 먹고, 감게..., 신게...'등도 '으'삽입을 요구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먹으게, *먹으고, *감으게..., *신으게...).

더욱이 선행어간말음이 유음인 경우에는 그나마의 공통적 음운 과정도 무너지게 된다.

(6) 'ㄴ'어간과의 결합

파열음계 연결어미 : 줄게, 줄지, 줄고

비음계 연결어미 : 줄며 (*줄으며)

길며 (*길으며)

조니 (*줄니, *줄으니)

기니 (*길니, *길으니)

유음계 연결어미 : 줄러 (*줄으러)

(6)의 경우, 파열음계 연결어미인 경우는 그대로 결합이 된다. 그러나 비음계와 유음계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으'삽입이 거부된다. 더욱이 비음계 연결어미의 경우, 음소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두음이 'ㄹ'인 경우에는 그대로 결합되지만, 'ㄴ'두음이 오게 되면 선행어간의 말음 'ㄴ'은 탈락하게 된다.

어간과 연결어미 결합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들 다양한 음운 현상들 (경음화, '으'삽입, 'ㄴ'탈락 등)은 이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잣대 부여가 필요함을 입증하여 준다. 연결어미 두음의 경음화와 어간 말음 'ㄴ'의 탈락을 있게 하는 음운론적 장치의 규명과, 조음소가 아닌 '으'의 진정한 실체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어 연결어미의 경우 표면적인 음운 현상에 근거한 다음의 세 분류가 필요하다.

(7) 연결어미 활용에 나타나는 음운현상

경음화 현상 : 먹게, 먹고, 먹지

감게, 감고, 감지

신게, 신고, 신지

'으'삽입 현상 : 먹으며, 먹으니, 먹으러

감으며, 감으니, 감으러

신으며, 신으니, 신으러

'ㄴ'탈락 현상 : 조니 (←줄다), 기니 (←길다),

고니 (←골다)

그러므로 이상 세 음운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유음 어간 말음과 결합하는 연결어미의 두음이 'ㄴ'이 아닌 경우에 국한됨을 알 수 있다.(줄게, 줄지, 줄고, 줄며, 줄러)

본고에서는 어간과 연결어미의 결합시 세 종류의 음운과정이 일어나는 원인과 개별적

인 특성규명을 목표로 한다. 자음과 자음의 연결이란 음절 말음과 음절 두음의 연결이다. 이러한 음운 현상은 음절 구조에 따른 강도체계로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명사를 대상으로 수립된 보편적인 강도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연결어미 활용형'의 특수성을 추출하고 그에 따른 형태론적 제약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음절구조의 강도체계

어간과 연결어미의 결합에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는 'ㄹ'을 음절말음으로 가지는 어간이었다. 후행 연결어미의 경음화나 '으'삽입이 필요치 않은 독자성을 보여준다. 이는 유성자음이라는 일군에서 비음과 유음의 분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와의 연결에서 어간 말음 'ㄹ'의 탈락 현상들은 'ㄹ'의 음운론적 특성과 더불어 음절구조 상에서의 어떤 속성이 음운과정을 제어하고 있음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ㄹ'의 이러한 특성과 함께, 파열음 두음으로 시작되는 연결어미의 활용 형태도 지금까지의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음과 자음이 결합되지만 속칭 조음소 '으'의 삽입이 아니라 후행 파열 두음의 경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으'삽입은 오직 후행하는 연결어미의 두음이 비음일 경우만 일어난다는 사실에서 음소특성과 음절구조와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

어간과 연결어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은 곧 어간의 '음절말 자음'과 어미의 '음절초 자음'과의 상관관계에 의한 것이다. 오정란 (1993, 1995 7. 1.)에서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음절구조의 역동적 기능에 의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하 오정란 1993, 1995 7. 1. 참조)

음절은 핵(nucleus)이 되는 모음을 정점으로 하여 앞뒤로 자음이 오게 된다. 음절두음(onset)과 음절말음(coda)이 그것이다. 물론 한국어에서는 모음 단독으로도 음절을 이루고 있으므로 모음수가 곧 음절수로 성립된다. 그런데 음절 두음과 음절 말음에 놓이는 자음들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은 것 같다. 여러 언어학적 근거를 통하여 볼 때, 음절두음은 음절말음에 비하여 지배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¹⁾

¹⁾ 음절두음은 음절말음에 대하여 강도적으로나, 조음위치적으로 지배 관계에 있다.

오정란 (1993)에서는 국민[kugmin], 독눈[tognun] 등 조음방법의 동화(소위 비음동화)의 예들과 감각[kaggak], 굴불[kumbul] 등 조음위치의 동화(소위 연구개음화와 순음화)의 예들을 "음절말음에 대한 음절두음의 강도 강세($C_{f(s)} < C_{f(s)}$), 음절두음의 위치 강세($C_{f(p)} \leftarrow C_{f(p)}$)"로 설명하였다. 음

실상 국어에서 일어나는 음절말 위치의 중화 현상은 음절말음의 상대적 약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음절 초 위치에서는 평음계열은 물론 경음과 기음도 제 음가를 가질 수 있으나, 종속적인 모음이 잇따라 오는 경우를 제외한 음절 말 위치에서는 경음과 기음은 평음으로 중화되고, 심지어 마찰음·파찰음 등은 /ㄷ/으로 중화되고 있다.

(8) 음절두음에 대한 음절말음의 상대적 약세의 예²

코[k ^h o]	쿠엣[puek]	상[san]	낫[nat]
팔[p ^h al]	엿[yep]	장[can]	낫[nat]
꼬마[k'oma]	엿다 [yək't'a]	창[c ^h an]	낫[nat]

일반적으로 '강화'로 알려진 음운 과정은 음절초에서는 일어나지만 음절 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하 Hooper, 1976 참조). 스페인어의 경우, 활음 /y/와 /w/가 음절초에 올 때, 이들은 보다 높은 장애음(마찰음)으로 바뀐다⁴. 반면 자음 약화의 일종인 동화 현상은 음절초보다는 음절말에서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국어의 비음동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음절 말음의 상대적 약세는 언어사적으로 입증되는데, 라틴어가 현대 스페인어에 이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음절말음의 마모 현상(약화 현상)도 곧 음절말음의 상대적 약세를 입증해 준다. 환언하면 음절두음의 상대적 강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음절두음의 자음은 음절말음보다 더 자음다운 자음, 곧 강한 자음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강도(strength) 개념은 공명도(sonority)와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공명도가 높을수록 약한 자음 (모음다운 자음)이며, 낮을수록 강한 자음(덜 모음다운 자음)이다. 그러므로 음절초 위치에 오는 자음은 의미판별의 기능부담량 때문에 강한 자음 (가장 덜 모음다운 자음)을 선호하며, 음절말에서는 음절초보다는 약한 자음 (덜 모음다운 자음)이 오게 된다.

절두음의 음절말음 지배성향이 자음동화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주요 동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² 이들 예들은 국어의 자음 강도 체계에서 경음과 기음이 가장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³ '엿다'의 예처럼 '파열음+파열음'의 경우에 일어나는 후행 파열음의 경음화 현상들도 자음 강도체계에서 음절 말음에 대한 음절 두음의 지배로 볼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에 대한 해석이 본 항의 목적이다. 후행어의 강도 높이기(경음화)를 가능케 한 것은 음절말음의 중화시 산출된 경음소 /ʔ/의 확산이다. (경음소/ʔ/의 확산에 대해서는 오정관 1988 참조바람.)

⁴ 음절 초 위치에서 활음의 장애음화

hielo	huevo	haya	agua
'ice'	'egg'	'there is'	'water'
[yelo]	[wɛβo]	[aya]	[awa]
[ʃelo]	[g ^h ɛβo]	[aʃa]	[aɾ ^h a]

국어 음절말 위치의 중화가 이것을 입증해 준다. 음절초에서는 제음가를 가지고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음과 파열음 등이 음절말에서는 평음으로 중화된다. 경음과 파열음은 평음보다 강도상 한 단계 높은 음운이다. Hooper(1976)와 Foley(1970)에서 제시된 언어사적 현상과 범어적 강도체계를 고려하면 (9)와 같은 강도체계가 수립된다.

(9) 국어 자음의 강도체계

활음	유음	비음	마찰음	무성폐쇄음	경음/기음
1	2	3	4	5	6
/y, w/	/l/	/m, n, ŋ/	/s/	/k, t, p, c/	/k', t', p', c'/ /k ^h , t ^h , p ^h , c ^h /

(10) 국어의 음절말 중화현상과 음절초 경음화 현상

위다 /yɛk' \$ ta/	→	[yɛk' t'a]
높다 /nop ^h \$ ta/	→	[nop' t'a]
갈다 /kat ^h \$ ta/	→	[kat' t'a]
3 > 5		5 < 6

(10)에서 음절 말음들은 강도 6/k' k^h p^h t^h/에서 강도 5[k p t]로 약화된 반면, 음절두음들은 강도 5/t/에서 강도 6[t']으로 강화되었다. '자음\$ 자음'연결시 음절말음인 선행음운은 음절두음인 후행음보다 강도상 낮아져서 강도체계 '<'형을 유지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자연스러운 동화현상으로 간주되어 온 비음동화 역시 음절구조에 따른 강도체계에 부합하려는 음운현상임을 알 수 있다. (11)에서 음절두음은 강해질망정 약해지지 않으나, 음절말음은 약화되고 있다.

(11) 국어의 비음동화 현상

국민 /kuk \$ mim/	→	[kug min]
5 > 3		3 = 3
밥물 /paç \$ mul/	→	[pam mul]
5 > 3		3 = 3

그 역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음을 고려하면⁵, 국어의 경음화, 비음동화 현상들이 모두 음절구조의 위치에 따른 역동적 강도체계에 부합하려는 공모성(conspiracy)으로 묶어진 재조정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두 자음의 음절 구조상 위치에 따른 강도제약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2) 음절두음의 강도강세⁶

$$Cf(s) < Ci(s)$$

(C)VCfCiV(C)구조에서 음절두음 Ci는 음절말음 Cf보다 자음강도에서 강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12)에 어긋나는 체계일 경우에 이와 같은 음절말음의 강도 낮추기로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또한 음절두음의 강도 높이기도 선택될 수 있다. 예로써 ‘파열음 + 비음’의 경우에 강도 높이기를 고려하여 보자. 강도조정이란 개념은 조음위치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강도만 조정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경우 현실 발음인 [kunmin]은 음절말음의 강도낮추기가 적용된 것인 바, ‘ㄱ’의 조음점은 그대로 유지된 채 강도만 낮추어진 예이다. 반면 ‘국민’의 강도체계를 (12)에 조정시키고자 후행 비음의 강도높이기를 생각하여 보자, 그러면 비음 ‘ㅁ’은 ‘ㄴ’으로 강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ㄱ’과 ‘ㄴ’은 모두 조음위치는 입술이며 강도만 다름). 그런데 왜 ‘국민’은 ‘국빈’으로 발음될 수 없는가?

첫째,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의미판별의 기능 부담량과 관련된다. 의미판별의 기능 부담량에서 음절두음과 음절말음의 비중이 현격함은 (8)에서도 입증된다. 그렇다면 ‘파열음 + 비음’의 어긋난 강도체계 수정을 위한 두 가지 방법(강도 높이기와 강도 낮추기)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언어의 기능에 비추어 합목적성을 지닌 것인가? 두 가지 방법 모두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변할 것을 요구한다. 강도높이기의 경우는 음절두음의 변화를, 강도낮추기는 음절말음의 변화를 요구한다. 의미판별이 음운의 가장 주된 기능임을 비추어 볼때 음절두음의 변화는 가능한 한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음절두음의 변화보다는 음절말음의 변화를 택함은 당연한 귀착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파열음 + 비음’의 자음 연결은 선행 음절말음의 강도 낮추기로써 음운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⁵ ‘비음 \$ 파열음’의 경우는 강도체계 ‘3<5’로 요건을 만족시키므로 비음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임금[im him], 강보[kan po]

⁶ 여기서 C는 자음(consonant), S는 강도(strength), f는 음절말 위치(final), I는 음절초 위치(initial)를 나타낸다. \$는 음절(syllable) 표시이다.

반면 [공명성]과는 상관없는 음운의 결합으로 (12)에 어긋나는 강도형인 경우에는 강도 낮추기 방법은 제외될 것이다. 강도높이기가 채택될 수 밖에 없는데, 음절구조상 강도높이기는 음절두음에만 가능한 기능이다. 예를 들어 '국도'를 보자. '음절말음·음절두음'의 결합이 /kt/로써 동등한 강도체계(5=5)로써 (12)에 어긋나는 형이다. 음절말음 'ㄱ'이 약화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강도약화의 동인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음절두음 'ㄷ'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강화는 가능할 것인가?

(8)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받침에 오는 장애음들은 장애음 앞이나 음절말 위치에서 중화되는데, 이 중화는 음성학적으로 내파(implosion)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내파는 후두폐쇄음[p̚](glottal stop)의 생성으로 이루어지므로, 모든 내파음은 음성[p̚]으로써 상징되는 것이다. 그런데 [p̚]은 후행장애음에 확산되어 국어 경음을 생성시킨 주요동인이다. (오정관 1988 참조) /kt/의 연결은 선행음절말음 'ㄱ'의 내파화를 유도하고 여기서 생성된 후두폐쇄음 [p̚]은 후행 'ㄷ'에 확산되어 경음 'ㄸ'를 산출하게 된다. 곧 [kt]로의 음운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 결합은 (12)에 합당한 것이다.

(14) 음절 두음의 강도 높이기 1

IF : Cf(s) = Ci(s)
 [-공명성] [-공명성]
 THEN : Cf(s) < Cf(s)

만약 음절말음과 음절두음이 동등한 강도체계를 이루면서 모두 장애음인 경우에는 음절두음의 강도높이기를 적용하라. 강도높이기는 선행음의 내파음[p̚] 자질의 확산으로 이루어진다.

감로[kam \$kə]의 경우는 '음절말음·음절두음'의 강도 /3>2/가 [3=3]의 강도체계 곧 [kam no]로 재조정되었다. 음절두음의 강도높이기의 결과인데, 이는 [설측성] 자질의 탈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5) 음절 두음의 강도 높이기 2

IF : Cf(s) > Ci(s)
 [+설측성]
 THEN : Cf(s) = Cf(i)

만약 음절두음이 음절말음에 비해 강도가 낮으면서 [설측성] 음운인 경우에는 음절두음의 강도높이기를 적용하라. 강도높이기는 [설측성]의 탈락으로 이루어진다.

음절 구조상 위치에 따른 강도체계가 어떻게 음운재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다음 예들에서 간단하게 제시한다.

(16) 음절 두음이 필요없는 경우 ; (12)를 만족시키는 경우

'유음+비음' ⁸	갈망	k a l m a ŋ [kalmaŋ]	
		2 < 3	
'비음+파열음'	임금	i m k i m [imkim]	
		3 < 5	
	공동	k o ŋ t o ŋ [koŋtoŋ]	
'비음+비음'	운명	u n m y ə ŋ [unmyəŋ]	
		3=3	
	영몽	y ə ŋ m o ŋ [yəŋmoŋ]	
		3 = 3	

(17) 음절말음의 강도낮추기가 적용되는 경우⁹ ; '파열음+비음'

'파열음+비음'	국민	k u k m i n → [kuŋ min]	
		5 > 3	(13) 3 = 3
받니	p a t n i → [pan ni]	5 > 3	(13) 3 = 3
		5 > 3	(13) 3 = 3
법망	p ə p m a ŋ → [pəm maŋ]	5 > 3	(13) 3 = 3
		5 > 3	(13) 3 = 3

(18) 음절두음의 강도높이기가 적용되는 경우 ; '장애음+장애음'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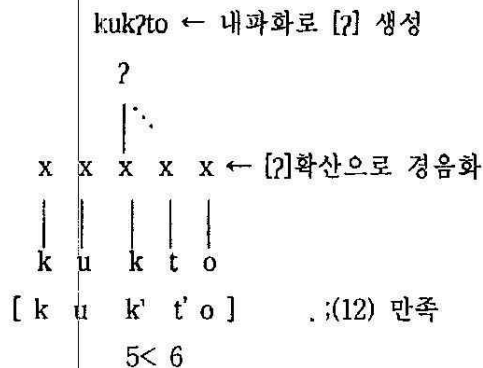
'장애음+장애음'	국도/k u k t o/
	5 = 5

⁸ '유음+비음'의 구조이지만 '실눈' 등과 같이 /l n/ '2<3' 결합형들은 /l l/ 로 설측음화되어 '2=2'의 강도체계를 가지게 된다. 이는 /l/과 /n/의 내적 구조상 특수한 결합력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상론은 3.2에서 다루게 된다.

⁹ '비음+유음'의 구조 역시 강도낮추기가 적용된다. '신라>실라' /n l/ '3>2'→ [l l] '2=2'. 그러나 /n/과 /l/의 결합은 전후 위치와는 상관없이 구조상 결합력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¹⁰ 본 논문의 논지 전개에 비추어 경음화 과정에 대한 상론은 생략한다.

만약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오정란 (1988, 1989)을 참조바람



지금까지 명시형에서, 음절 구조에 따른 강도체계가 자음 사이의 음운 변화를 제어하는 주요 동인이었음을 살펴 보았다. 이 원리는 어간과 연결어미의 결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어간이나 어미들은 의미 기능 부담량에서 각각 상응하는 무게를 지니는 형태소들이므로, 단일 명사들과는 달리 형태 변화에 대한 거부력이 상당할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만약 거부력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형태 보존을 피하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석과 실제파악이 본 논문의 주안점이다.

3. 강도체계와 형태소 보존 기능

3.1 연결어미의 경음화 현상

파열음을 두음으로 하는 연결어미들은 선행 어간의 음절말음이 파열음이나 비음인 경우에는 경음화된다. ‘파열음+파열음’의 경우에는 명사와 마찬가지로 (14)의 과정을 겪게 된다. 강도체계 ‘5=5’인 ‘먹게’는 (12)에 부합한 [먹게] ‘5<6’으로 발음된다.

국어 음소체계에서 평음과 경음은 각기 의미분화하는 최소대립상으로써 별개의 음운이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대립은 어두 혹은 모음 사이에서만 성립될 뿐, 파열음 뒤에서는 중화되어 버린다. 파열음 뒤에 오는 파열음은 음성적으로 경음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간말음 파열음 뒤의 연결어미 ‘-게, -지, -고’등은 경음화함으로써 음절위치가 요구하는 강세조건 -어두음으로서 어말음보다 강해야 한다는 -을 충족시키게 된다. ‘으’의 삽입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반면, 어간말음이 비음인 경우는 명사형과는 상이한 반응을 보인다. ‘비음+파열음’의 자음결합은 강도구조 ‘3<5’로써 (12)를 만족시키므로, 강도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다. 명사인 경우에는 (16)에서처럼 그대로 발음되었다. 그러나 어간과 어미의 경우에는 음절두음의 경음화가 일어난다. 감게[감게], 감지[감찌], 감고[감꼬] 등.

명사형과 용언 활용형 사이의 이 차이점은 형태소 보존 의식의 차이로 볼 수 밖에 없다. 만약 용언 '감게'를 명사형 '감게'와 마찬가지로 [kamge]로 발음한다면 연결어미 '-게'의 의미기능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음운변화를 제어하는 두 기능은 노력경제심리와 표현 효과 심리이다. 전자는 조금이라도 힘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쉽게 발음하려는 것으로, 동화현상이 그것이다. 후자는 힘이 더 들더라도 자신의 발화의도를 좀 더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이화현상이 그것이다. 이화현상의 대표적 예는 경음화로 들 수 있다¹¹.

어미가 문법적 기능과 의미분화 기능을 수행하는 교착어인 국어에서, 특히 연결어미의 어두음은 기능면에서 상당한 부담량을 가지게 된다. 비음과의 결합어미에서 연결어미 '-게'를 경음화시키지 않으면, 'ㄱ'은 유성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되어 청각 효과가 흐려질 것이다. '감게·감지·감고'의 경우, 연결어미 두음이 경음화됨으로써 유성음화를 막게 된다. 이 때 생성된 '비음+경음'의 강도체계는 '3<6'으로 (12)에 역시 만족되는 형이다. 이와 같이 비음에 연결되는 연결어미 어두음의 경음화는 음운론적 제약의 만족 범위 내에서 형태론적 제약이 고려된 결과인 것이다.

어간말음이 유음인 경우에도 강도 체계 '2<5'로 (12)를 만족시킨다. 그러나 '3<5'의 강도체계로 (12)를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어미의 음절두음을 경음화 시켰던 '비음+파열음'과는 달리, '유음+파열음'의 경우는 강도체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줄게·줄지·줄고 등. '유음+파열음'의 명사형도 강도 재조정 없이 발음됨은 마찬가지이다. 놀부·필두 등.

선행하는 어간 말음이 비음이면 뒤에 오는 어미의 어두 파열음은 경음화되고, 유음 뒤에서는 그대로 유성음화 한다는 것이다. 이 상반된 현상에 대한 해석은 강도 차이의 정도에 둘 수 밖에 없다. 두 자음 사이의 강도차가 클수록 후행음의 표현효과는 강하게 되며, 반면 강도차가 적을수록 표현 효과는 약하게 느껴진다. 이는 '비음+파열음' (3<5)에서의 강도차 '2'와, '유음+파열음' (2<5)에서의 강도차 '3'의 양적 문제인 것이다¹². '2'의 강도차인 전자의 경우에는 더 큰 표현효과를 위하여 후행어를 경음화하여 '3'의 강도차를 유발하게 하였다고 추정한다. 그러므로 비음과 유음의 이 차이는 유음이 모음에 가장 가깝고 가장 약한 강도의 자음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ㄹ'어간 뒤에 오는 어미

¹¹ 표현 효과 심리에 근거한 경음화는 시대가 흐르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음화가 현대 사회 속의 대중들이 느끼는 '균중속의 고통' 혹은 '아노미(anomie)'적 심리 상태에 대한 보상 기능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오정란 1988: 11-18)

¹² 이 때의 수치는 절대적인 값이 아닌 상대적인 평가척도의 개념이다.

들이 경음화나 ‘으’삽입 없이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주요 원인이었던 것이다.

파열음계 연결어미는 1) 강도차가 많이 나는 유음과의 결합에서는 제 음가를 가지며, 2) 파열음과의 결합에서는 음절구조의 강도체계에 부합하고자 경음화하며, 3) 비음과의 결합에서는 연결어미의 형태소 보존의식의 강화로 경음화됨을 알 수 있었다.

3.2 어간의 ‘ㄹ’ 탈락 현상

가장 약한 강도의 자음이라는 음소의 특성으로 인하여, ‘ㄹ’을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은 후행하는 연결어미의 음운론적인 강도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파열음계 연결어미 뿐 아니라 비음 중에서 ‘ㄹ’계 연결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줄며·길며 등.

‘유음+ㄹ’의 강도체계는 ‘2<3’으로 (12)를 만족시킨다. 물론 강도차가 보다 커기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동일 음소 속에서 음절두음 ‘ㄹ’을 강화시키거나 음절말음 유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만족된 ‘2<3’을 유지하게 된다. 실망·갈망 등.

그러나, ‘ㄹ’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되는 연결어미가 오게 되면 선행 ‘ㄹ’은 탈락하게 된다. 소위 ‘ㄹ’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ㄹ+ㄴ’의 경우 ‘2<3’의 강도체계로써 (12)를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ㄹ’의 탈락이 일어난다. 이와 동일한 강도체계를 가지는 ‘ㄹ+ㄹ’의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ㄴ’과 ‘ㄹ’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이 현상은 두 음운 사이의 긴밀성에 기인하는 것 같다. 줄+니 → 조니, ‘놀+니 → 노니’, ‘갈+니 → 가니’ 등이 그것이다.

용언과는 달리 명사형에서는 전후 방향에 상관없이 소위 설측음화라는 양방향적 융합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을 생성문법에서는 경상규칙(mirror image)으로 나타낸다.¹³

‘ㄴ’과 ‘ㄹ’ 사이의 긴밀성의 원인은 음운의 자질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Rice & Avery (1991)의 개념 중 SV(spontaneous voice) 마디를 공명음 마디로 대체한 자질 수형도 (20)을 상정하기로 한다. 공명음 마디 아래 무표적인 미명세 자질은 [비음성]이며, 명세되는 유표적 자질은 [설측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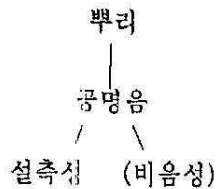
¹³ 1) 찰나 [찰라], 칼날 [칼랄] 에서 : $n \rightarrow 1 / _$

2) 신라 [실라], 전라 [절라] 에서 : $n \rightarrow 1 / _l$

이 두 규칙은 경상규칙으로 묶여진다.

3) $n \rightarrow 1 \% 1$

(20) 공명음의 자질 위계



공명음 마디의 존재 유무는 자음의 강도와 관련된다. 공명음 마디가 있는 음은 공명도가 높은 자음 - 곧 약한 강도의 자음이다. 그러므로 공명음 마디 아래 유효적인 자질이 지배되는 경우엔 더욱 약화되게 될 것이다. 국어 음운 중에서 'ㄹ'이 가장 모음에 가까운 자음인데, 'ㄹ' 약화의 최종적인 관건은 바로 [설측성]의 명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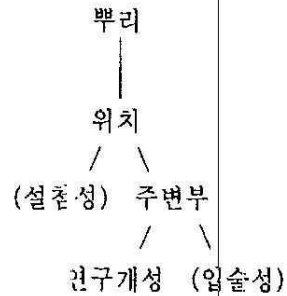
그러나 'ㄹ'음의 특수성은 [설측성]의 명세뿐 아니라, 조음위치의 제약성에도 있다. 조음 위치를 크게 나누면 주변부(peripheral)와 중앙부로 양대분된다. 중앙부는 달리 설첨부(coronal)로 불리운다. 주변부는 다시 앞쪽인 입술부위(labial)와 구강 뒤쪽인 연구개부(dorsal)로 나뉘어진다. 파열음과 비음의 경우는 '입술·설첨·연구개'의 어느 위치에서도 조음이 가능하여 'ㄷ ㄸ ㄱ'와 아울러 'ㄱ ㄴ ㅇ'의 생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ㄹ'이 가지는 설측성은 오직 설첨의 위치에서만 조음이 가능하다는 제약성을 가진다.

조음방법상의 독특한 [설측성] 뿐만 아니라 조음위치상의 제한된 제약성 [설첨성]이 'ㄹ'로 하여금 음운현상에서의 특수성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어 자음 중에서 가장 무표적인 음은 'ㄷ'이며, 그것의 위치자질 [설첨성]은 위치마디에서 미명세될 수 있다. 또한 위치에 의한 여러 동화 현상들을 고려하면 '주변부'위치 마디에 무표적인 미명세 자질은 [순음성]이며, 유효적인 명세자질은 [연구개성]이다.¹⁴ Avery & Rice(1989:103-106)의 제안을 원용한 국어 자음의 위치 자질의 위계는 다음과 같다.

¹⁴ 조음위치 조정은 국어에서 강도체계가 만족된 상태에서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연구리>엮뿌리>[역뿌리]' '갑기>[강기]', '신문>[심문]'등이 그것이다. '음절말음 \$ 음절두음'의 관계에서 '순음성 \$ 연구개성'의 경우에는 음절두음의 [연구개성]이 음절말음에 영향을 미치며, '설첨성 \$ 순음성'의 경우에는 [순음성]이 [설첨성]을 동화시킨다. 또한 '실교 > [식교]'의 예처럼 '설첨성 \$ 연구개성'의 경우에는 [연구개성]이 [설첨성] 쪽으로 확산된다. 이 위치동화의 방향성 역시 음절 두음에의 지배관계에 입각한 것이며, 확산 관계로 미루어 (21)의 자질구조가 성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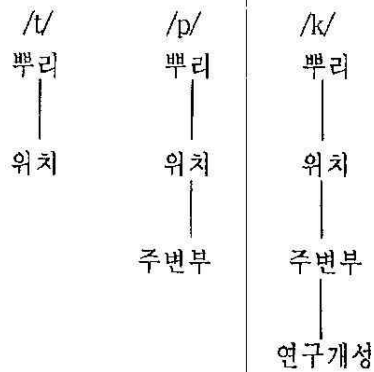
(21) 위치 자질의 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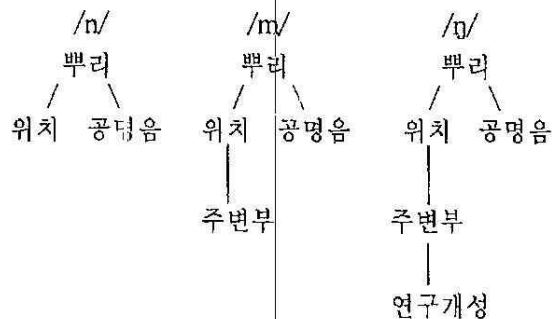
(21)에 의하면 국어에서 조음위치동화가 ‘연구개성 → 입술성’, ‘연구개성 → 설침성’, ‘입술성 → 설침성’의 일방향으로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이때도 음절두음의 자질이 음절말음쪽으로 확산되는 음절구조상의 지배원리에 입각한다.

(20)의 공명음의 자질위계와 (21)위치 자질의 위계를 함께 고려한 자음들의 자질 내부는 다음과 같다. 파열음은 공명음 마디를 가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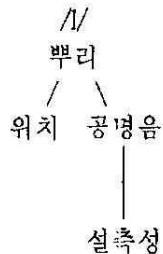
(22) 파열음의 자질구조



(23) 비음의 자질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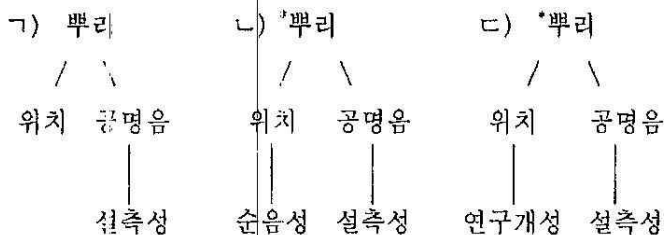
(24) 설측음 'ㄹ'의 자질구조



(24)의 설측음의 자질 구조에서 위치 마디는 미명세되는데, /l/과 조음위치를 공유하는 음운은 /t/와 /n/ 이다. 그러나 /t/는 공명음 마디가 없으므로 'ㄹ'과 가장 가까운 음운은 'ㄴ'임을 알 수 있다. 곧 설측성의 확산은 공명음 마디로 이루어지지만, 확산조건은 공명음 마디 뿐 아니라 위치 마디의 미명세가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설측성]의 명세와 위치 마디의 명세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음절말음 \$ 음절두음'의 조음위치가 '설측성 \$ 연구개성'으로 자질위계이론으로는 연구개성의 확산이 가능한 '싱고'의 연구개화 *[싱고]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ㄹ'의 연구개화음은 (25ㄷ)에 해당하는 구조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설측음의 조음 위치는 오직 설첨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설측성과 위치 마디의 결합제약을 자질위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설측성과 위치 마디와의 결합 제약



(25)에서 오직 ㄱ)만이 허용되고 나머지 ㄴ) ㄷ)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러한 'ㄹ'의 배타성 때문에 '감로'는 [감노]로 발음될 뿐 [갈로]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신라 > 실라'와 '찰나 > 찰라'에서 'ㄴ → ㄹ'은 (25. ㄱ)의 구조로의 합류이므로 허용되어진다. 더욱이 두 음운 사이라는 배타성 때문에 그 결합력은 더욱 강한 듯하다. 그러나 용언 활용 '줄+니'는 *[줄리]가 아니라 [조니]로 발음된다. 피상적으로 보면 'ㄴ'과 'ㄹ' 사이의 긴밀성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현상인 듯하다. 그러나 어미의 형태소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면 음소

사이의 긴밀성 때문에 일어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어미 '-니'의 형태보존의식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줄+니'는 당연히 [줄리]로 발음될 것이다. 자연스러운 음운과정의 결과인 [줄리]에서는 연결어미 '-니'의 형태상 변형이 일어나게 되며, 그 결과 의미전달이라는 형태소의 기능은 감소하게 된다. 어미 '-니'의 형태보존을 위해서는 선행자음이 'ㄹ'이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ㄹ'이 아니기 위하여 다른 자음으로 대체된다면 어간 자체가 달라진다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 '-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모음에 가까운 자음이라는 'ㄹ'의 특성에 따라 탈락시키는 방법이 차선택이 될 것이다. 또한 어두음과 어말음의 변형 중에서 변형부담을 어말음에 전가하는 것이 보다 선호된다는 음절구조의 의미 기능면에서도 타당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ㄹ'로 끝나는 어간과 'ㄴ'계 연결어미의 결합에서 'ㄹ'이 탈락되는 현상은 두 음운 사이의 구조적 긴밀성 속에서 형태를 보존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임을 살펴 보았다.

3.3 '으' 삽입현상

파열음계 연결어미는 파열음 자체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선행음운에 따라 본디 음가를 유지하거나 (유음과의 결합), 경음화됨으로써 (파열음이나 비음과의 결합) 음절의 강도체계도 만족시키고 형태소의 보존도 꾀하게 된다.

반면 파열음에 비해 강도가 낮은 비음이나 유음으로 시작하는 연결어미의 두음은 선행음이 유음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음절 강도체계 (12)에 어긋나게 된다. 명사형인 경우는 자체내에서 강도 재조정 과정을 거쳐 선행음의 비음동화 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어간과 어미 각 형태소의 보존이 요청되는 활용형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먹+며'에서 어간말음 'ㄱ'과 어미두음 'ㅁ'의 강도체계는 '5>3'으로 (12)에 어긋난다. 이 때 형태소 보존의식이 첨가되지 않는다면 명사형 '먹물 [멍물]'과 마찬가지로 '먹면'은 *[멍면]으로 발음될 것이다. *[멍면]은 음절상의 강도체계는 유지되지만, 어간 말음의 변화로 형태소의 모습이 이즈러진 것이다. 어간말음의 음운변화를 막아 가능한 한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제어장치로써 모음 삽입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삽입되는 모음은 국어에서 가장 무표적인 '으'가 될 것이다. '으'의 삽입은 어간 말음으로 하여금 음절두음이 되어 독립된 한 음절을 이루게 하면서 어간말음과 어미두음의 형태 보존과 강도 만족을 꾀하게 된다.

어간 말음이 파열음이면서 어미 두음이 비음 (강도체계 5>3)이나 유음 (강도체계 5>2)이 올 경우에는, 파열음의 변화(약화)를 막기 위해서 '으' 삽입이 요구된다. 먹으며[머그며], 먹으니[머그니], 먹으러[머그러] 등.

어간말음이 타음인 경우는 강도체계가 '3=3' 동격이므로 음절두음이 음절말음보다 강해

야 한다는 (12) 규칙에 어긋나는 결합이다. 동격 강도 속에서 선행 음절 말음의 형태소 부각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으'를 삽입시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러'(3>2)의 경우는 음절 강도체계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실러]로 발음되어 어간의 형태가 손상되어 진다. 이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으'인 것이다. '감+러'의 경우 '으'가 삽입되지 않는다면 *[감너]로 발음되어 강도 재조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감+러'에서 어미 '-러'의 형태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음삽입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여러 예들도 이에 준하게 된다. 먹으며, 감으니, 신으러, 등. 음운론적으로 강도가 약한 비음이나 유음이 연결어미의 두음으로 오게 되면, 선행어간 말음의 약화나 연결어미 두음의 강화로 형태소 손상이 있게 된다. 이 형태소 손상에 대한 거부 및 음절구조의 강도체계와의 부합을 꾀한 것이 '으' 모음 삽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국어 용언의 활용형 중에서 어간과 연결어미의 결합시에 나타나는 세 종류의 음운현상들을, 음절구조의 강도체계 및 형태소 보존의식이라는 두 잣대에 의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밝혀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음절구조에서 음절두음은 음절말음을 강도적·위치적으로 지배한다. 따라서 음절두음의 위치에는 음절말음보다 강한 강도의 음소가 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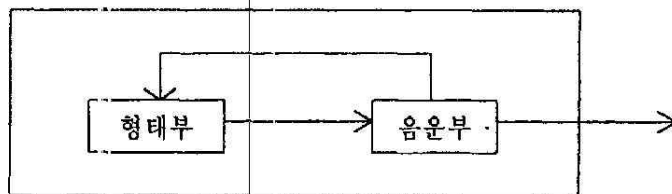
둘째, 통사 범주에 따라 형태소 보존에 대한 의식의 강도가 다르다. 용언 활용에서의 어간·어미의 형태소 보존 욕구는 명사형 내부 음소 사이에서보다 강하다. 음소 결합이 동일한 경우에 명사형 내부에서는 음운론적 과정을 수용하는 반면, 용언 활용형은 여기에다 형태론적 제약을 덧가지게 된다.

셋째, 어간과 연결어미 결합에서는 어미 두음의 경음화 현상, 어간 말음의 'ㄹ'탈락 현상, 어간과 어미 사이에 '으' 모음의 삽입현상 등이 일어난다. 이들 음운론적 현상들은 실은 음절의 강도체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어간 혹은 어미의 형태소 보존을 위한 제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 세 현상들은 형태소 보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기능하는 공모성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연결어미의 이러한 특성은 음운부와 형태부의 상호 검색 기능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음운 규칙은 각각의 형태론적 작용 직후의 조어에 적용되고, 그 음운론적 과정의 출력부는 다음 형태론적 작용의 입력부가 된다는 어휘음운론의 기본 개념과 일치하고 있다.

Mohanan (1982) 에서의 간단한 그림과 연결어미 활용을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26) 형태부와 음운부의 상호 기능



- 1) 먹 + 며 → 명머
 ✓
 먹+으+며 → 머그머
- 2) 줄 + 니 → 줄리
 ✓
 조 니 → 조니

형태부에서 조어진 '먹+며', '줄+니'등은 음운부에서 강도체계나 음운특성에 따라 음운론적으로 '명머', '줄리'로 재조정된다. 이것은 다시 형태부에서 형태론적 요구에 따라 검색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 보존이 그것이다. 그 결과 다시 조어진 '먹으머'와 '조니'는 음운부에서 검색을 거친 다음 표면음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운부와 형태부의 상호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어 연결어미의 활용 형태는 불규칙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규칙성을 지닌 것임을 추적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오정란, 1988.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1989. “국어 후두음 층열의 정립”, *주시경학보* 2.
 ———, 1993. “국어 음운현상의 지배관계”, *음운·음성·형태론 연구* 1. 음운론연구회.
 ———, 1995-1. “국어 ‘ㄹ’음의 특성과 결합적 제약”, *한국어학* 2. 한국어학회.

- _____. 1995. "비음화와 비음동화", 국어학 25, 국어학회.
- 최현배. 1939.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Foley, J. 1970. "Phonological Distinctive Features," *Folia Linguistica* 4.
- Hooper, J. B. 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y Press.
- Mohanan, K. P. 1982. *Lexical Phonolog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 Rice, K & P. Avery. 1989. "On the Interaction between Sonorancy and Voicing," *Toronto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0.
- _____. 1991. "Laterality and Coronality," *Phonetics and Phonology* 2.